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287>

JCCT 2024-11-36

사례분석을 통한 팝업도서관 운영 전략 제안 연구

Research on Operation Strategy of Pop-up Library through Case Analysis

이은주*, 윤유라**

Lee Eun-Ju*, Youn You-Ra**

요약 본 연구는 최근 도서관 마케팅의 한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는 팝업도서관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외 도서관의 팝업도서관 사례를 대상으로 특징과 운영방식을 분석한 후, 향후 우리 도서관계에서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운영 전략을 단계별로 정리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팝업도서관은 단기간 특정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임시 도서관의 형태를 의미한다.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지역사회에 새로운 공간에 임시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서비스 및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로 호주와 영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등 총 5개의 팝업도서관을 살펴보고, 운영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팝업도서관 운영전략을 단계에 따라 ① 계획 수립, ② 준비, ③ 운영, ④ 평가, 총 4단계로 제안하였다.

주요어 : 팝업도서관, 사례분석, 도서관 마케팅,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경영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pop-up libraries, which have recently been discussed as a form of library marketing, an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operation methods of pop-up libraries in overseas libraries, and to summarize a step-by-step operation strategy that Korean libraries should consider when operating pop-up libraries in the future. Pop-up libraries are temporary libraries that rent a spa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By setting up a temporary library in a new space in the community and providing services and resources outside of the physical space of the library,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f interacting with the community and local residents. We examined five pop-up libraries in Australia and the United Kingdom, including public libraries and university libraries. Finally, based on the implications drawn from the five operational cases, this paper proposes four steps for the actual operation of pop-up libraries in Korea: (1) planning, (2) preparation, (3) operation, and (4) evaluation.

Key words : pop-up library, case analysis, library marketing, library service, library management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27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5일

Received: August 27, 2024 / Revised: September 25, 2024
Accepted: Nov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yryoun@deu.ac.k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ong-eui
University, Korea

I. 서 론

202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기본계획이 중요한 까닭은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독서율은 43.0%이고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나타나 2021년에 비해 성인독서율은 4.5%, 종합독서량은 0.6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특히, 성인들의 비독서 이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항목은 “일 때문으로 인한 시간 부족”(24.4%)[1]으로, 성인들의 독서 시간 확보를 통해 독서율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의 발표와 실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독서율 향상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독서율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독서 활동이 가능하도록 독서접점을 확장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기관을 활용하여 독서접점을 확장하면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환경을 단시간 내에 개선할 수 있으며,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시간부족으로 인한 비독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서접점을 확장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버스정류장, 역사, 터미널 등 방문빈도가 높은 공공시설에 QR 코드를 설치하거나 가상도서관 설치를 확대하는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본 연구에서는 팝업도서관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팝업도서관은 공공장소, 커뮤니티 센터, 공원 및 쉼터 등 지역사회 곳곳에 소규모 읽을거리를 두고 읽을 장소를 마련하여 단기간 운영하는 도서관 주도형 사회적 이니셔티브로, 일시적으로 장소와 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2].

국외의 경우 팝업도서관은 도서관의 홍보 방법 중 하나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장소에 팝업도서관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또 다른 시각과 기대를 제공할 수 있으며,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지역주

민들의 도서 및 각종 독서활동에 대한 노출 빈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팝업도서관은 앞서 설명한 성인독서율의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들의 삶에 밀착된 팝업도서관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독서 저변을 확장시킬 가능성 또한 기대된다.

이처럼 성인독서율을 높이고 독서문화 환경을 개선·확장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국외 팝업도서관 운영사례를 살펴보고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점에 기반하여 국내 팝업도서관 운영 전략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 팝업도서관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2) 국외 도서관의 팝업도서관 사례를 대상으로 특징과 운영방식을 분석한 후, (3) 향후 우리 도서관계에서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운영 전략을 단계별로 짚어 보았다.

II. 이론적 배경

팝업(pop-up)은 ‘뺑하고 튀어오르다’라는 의미로, 웹사이트에서 생겼다 사라지는 팝업창과 유사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팝업의 개념이 적용된 팝업스토어는 단기간 특정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임시상점을 의미하며, 전 세계 다양한 산업을 넘나들며 운영되는 글로벌 트렌드이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운영되는 팝업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 더 깊이 다가가 자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하며, 팝업도서관의 핵심 개념은 ‘발견’이다. 즉, 팝업도서관은 기대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에서 지역사회가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상호작용하여 도서관을 발견한다는 기쁨을 제공한다. 팝업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는 팝업도서관의 컨셉, 위치, 기억에 남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최근 팝업도서관의 많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으나 흥미롭게도 팝업도서관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1860년판 멜버른 명감(Melbourne directory)에 따르면 1853년 멜버른 순환도서관(Melbourne Circulating Library)에서는 교외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기차역을 활용하여 팝업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3]. 이처럼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이동도서관의 형태로 운영되기도 하고, 비정기적으로 운

영되는 이벤트성 형태로 운영되기도 한다.

팝업도서관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주민과 상호작용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전파하며, 지역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실제 호주의 캠던 도서관(Camden Libraries)에서는 전자자원을 활용한 팝업도서관을 매 장소에서 2시간씩 운영한 결과, 한 장소에서 평균적으로 6-10명의 신규회원이 등록하였고, 전자자원의 이용통계가 증가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도서관에 오지는 않더라도 멈춰 서서 도서관의 존재에 주목하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도서관의 홍보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팝업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직원이 전자자원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직원역량 강화의 측면에서도 성과가 있었음을 밝혀낸 바 있다[4]. 이처럼 팝업도서관은 도서관의 홍보와 인식제고, 도서관 비이용자의 타겟팅 서비스라는 1차적인 목표도 존재하지만 기관 소속 직원들의 서비스 정신 고취와 역량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국외 팝업도서관 운영 사례

1. 호주 사례

1) 프랭크스톤 시립도서관(Frankston City Library)

프랭크스톤 시립도서관의 팝업도서관은 2023년말 도서관이 리모델링을 앞둔 때를 제외하고 약 10년 동안 운영되었으며, 성공적인 팝업도서관이 어떻게 도서관 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프랭크스톤 시립도서관에서 처음 팝업도서관을 운영한 까닭은 장시간 근무로 인해 도서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새로운 이용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목적에 맞춰 팝업도서관 계획 수립시 이용자의 대출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 새롭고 인기 있는 외부 장소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팝업도서관을 운영할 위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는데, 팝업도서관 준비팀은 지역사회 공간의 특징을 분석하여 교외 기숙사 지역, 기차역과 같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을 식별하였고, 해당 지역에서 베스트셀러 위주로 대출과 반납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2]. 2024년 현재는 지역 교외에 존재하는 랜드

마크 극장이자 미술관 옆에 1주일에 3일간, 하루에 5시간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5].

처음 팝업도서관을 시작할 때에는 의회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초기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었을 때 지역사회의 대규모 청원을 통해 지속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받을 수 있었다. 이는 팝업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임과 동시에 지역 내에서 도서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선샤인 코스트 도서관(Sunshine Coast Library)

2013년 선샤인 코스트 도서관은 서로 다른 목적을 위해 두 개의 팝업도서관을 운영하였다. 첫 번째 팝업도서관은 선샤인 코스트 대학교(University of the Sunshine Coast)에서 개최하는 Epic Diem이라는 너드컬처엑스포(Nerd Culture Expo)에 팝업도서관 "Vault"를 배치한 사례이다. 2013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도 운영되는 Vault 팝업도서관은 괴짜들의 꿈의 도서관이 현실이 되어 회원이 되고, 관련 자료를 예약하고,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도서를 대출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팝업도서관을 구성하는 도서는 괴짜나 코스프레 주제에 맞춰 최신 SF, 판타지, 스탬핑크, 만화책, 그래픽 노블, 괴짜(Geek) 기술 가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별하며, 만화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초청하여 강연회도 개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의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6].



그림 1. 선샤인 코스트 도서관의 팝업도서관
Figure 1. Pop-up library of Sunshine Coast Library

너드컬처엑스포에서 팝업도서관을 운영한 것은 수년 간 지역대학교와 지역박람회와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운영한 긍정적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너드컬처엑스포의 성격에 맞게 자료유형을 선별하고 적합한 컬렉션을 선

정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도서관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선사인 코스트 도서관의 두 번째 팝업도서관은 도서관 초안 계획을 홍보하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수집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하였다. 특히,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는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 나가기 위해 팝업도서관을 계획하였는데, 많은 이들을 만나기 위해 지역의 해변에 팝업도서관을 설치하고 도서관 계획에 관해 열린 공간에서 대중과 토론하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400여 건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홍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 책을 대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팝업도서관을 해변에 설치하여 독서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었다[2].

이처럼 선사인 코스트 도서관은 팝업도서관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는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도서관을 홍보하였다. 특히, 지역대학에서 개최하는 컬처엑스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운영함으로써 이벤트성 팝업도서관임과 동시에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영국 사례

1) 버밍엄대학도서관(University of Birmingham Library)

버밍엄대학도서관에서는 팝업도서관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가 학교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 자원, 시설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캠퍼스 내에 도서관 직원이 배치된 23개의 부스를 설치하였다. 팝업도서관은 캠퍼스 내 이동이 많은 점심시간 전후인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2시 15분까지 운영되었으며, 교수·학습 공간과 사교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팝업도서관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로 팝업이 설치된 단과대학에 맞춘 주제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간략한 세부정보 제공은 물론 과제와 리포트 조사 및 작

성을 위한 팁을 제공하였으며, 6월에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논문테마 부스가 시범운영되었다. 동문기금으로 운영된 팝업도서관은 직원교육, 부스용 장비 준비 및 설치비, 홍보자료 제작비, 설문지 참여에 대한 소액의 답례비를 지불하는데 사용되었다[7].

버밍엄대학도서관 팝업도서관의 운영사례는 평가과정에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버밍엄대학도서관에서는 팝업도서관에서 사용할 짧은 설문지를 별도로 개발하였는데, 설문지가 한번 배포되면 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파일럿으로 팝업도서관을 한번 운영해 본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부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지를 활용해 방문횟수, 방문시간, 팝업도서관 방문전 학생들의 인식은 물론 팝업도서관에서 학습한 내용, 팝업도서관을 통해 알게 된 사항, 팝업도서관의 개선 아이디어,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이후 후속 설문지를 발송하여 영향력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8].



그림 2. 버밍엄대학도서관의 팝업도서관
Figure 2. Pop-up library of University of Birmingham Library

2) 울버스턴도서관(Ulverston Library)

지금까지의 팝업도서관이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발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울버스턴도서관에 설치된 팝업도서관은 도서관이 그 본연의 기능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팝업도서관의 개념을 확장한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울버스턴도서관은 2023년 건물의 전기 시설 문제가 발견되면서 폐쇄되었다. 울버스턴도서관은 도서대출 뿐 아니라 모바일 banking 서비스, 무료 컴퓨터 및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마을의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도서관의 폐쇄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에 의회에서

는 시대 중심가에 있는 커뮤니티 빌딩인 The Core에 팝업도서관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팝업도서관에서는 고객을 위한 정보 및 자원을 제공하는 도서관 접수 데스크를 설치하고, 도서반납의 기능뿐 아니라 공공컴퓨터와 책상, 프린터기가 제공되었다. 그러나 The Core에 설치된 시설은 매우 협소하고 커뮤니티 빌딩의 운영 원칙에 따라 주중, 또한 오후1시까지라는 짧은 시간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울버스턴도서관은 첫 번째 팝업도서관과 가까우며 마을 주민들의 이동이 많아 접근성이 높은 마켓 스트리트에 두 번째 팝업도서관을 설치하였다. 이곳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대출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단체, 회의, 행사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였다. 현재, 울버스턴도서관의 재개를 위한 여러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팝업도서관은 보다 규모가 크고 접근성이 좋은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여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다[9].

울버스턴도서관의 팝업도서관은 첫째, 도서관의 제난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는 특징이 있으며, 둘째, 임시로 설치된 팝업도서관을 이용한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도서관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게 되고, 지역사회에 도서관의 재건을 강하게 요구하도록 시민들을 선동하고 홍보하였다는 점에서 팝업도서관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3) 서퍽도서관 (Suffolk Library)

팝업도서관은 단순한 대출서비스가 목적이었던 아웃리치서비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영국의 서퍽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도서관의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유용함을 알리기 위해 해변가의 오두막을 팝업도서관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서퍽도서관의 팝업도서관에서는 대화형 스토리텔링 워크숍, 고전 동화 낭독, 춤바 댄스, 해변 댄스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운영했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팝업도서관이 고객의 요구와 관심사에 맞춤형하여 도서관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웃리치 서비스와의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퍽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팝업도서관이 운영되는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10].

서퍽도서관의 팝업도서관은 아웃리치 서비스를 확장

한 개념으로 대상과 목적에 따라 도서관의 컨셉이 설계되어 이용자 맞춤형으로 자원과 서비스가 유연하게 변형가능하고 운영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그림 3. 서퍽도서관의 팝업도서관
Figure 3. Pop-up library of Suffolk Library

IV.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전략 모색

1.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지금까지 호주와 영국 도서관계에서 운영한 팝업도서관 사례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팝업도서관은 운영 목적과 방법, 설치 장소와 시기 등이 매우 다양하고 그에 따라 구현되는 모습도 매우 상이하였다. 가령, 프랭크스톤 시립도서관은 장시간 일하는 이들의 대출반납의 편의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팝업도서관을 시작하였으며, 선샤인 코스트 도서관은 너드문화박람회에 참여 주체이자 이용자 의견 청취의 기회를 얻기 위해 시작하였다. 울버스턴도서관은 재난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팝업도서관의 상이한 운영목적은 실제 운영 컨셉에 영향을 미쳐 운영형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파악되었다.

팝업도서관 목적, 컨셉, 운영방식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일부 상이할 수 있는데, 장서, 홍보자료, 평가자료는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첫째, 장서는 팝업도서관의 컨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료일 필요가 있는데, 가령 너드문화박람회에서 개최된 팝업도서관은 SF, 판타지 자료와 만화책 등을 제공하였고, 버밍엄대학도서관은 설치되는 단과대학의 주제분야별 자료를 제공하였던 것처럼 자료선별시 이용자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팝업도서관의 구체적인 운영목적은 상이할 수 있지만 도서관의 존재와 제공서비스를 홍보하

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홍보자료는 팝플렛의 형태일 수도 있고, 배너 형태나 게시판 형태일 수도 있으며, 특히, 팝업도서관은 예상치 못한 공간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시성 높은 홍보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팝업도서관 맞춤형 평가자료의 준비가 필요하다. 모든 서비스는 종료 후 만족도 혹은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팝업도서관 또한 이용 만족도, 이용 후 도서관에 대한 인식변화 등에 대해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팝업도서관은 지역의 환경과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는 지역사회 기관과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2. 운영 전략

5개의 운영사례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팝업도서관을 실제 운영하기 위한 단계를 절차에 따라 제안하면 ① 계획 수립, ② 준비, ③ 운영, ④ 평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각 단계별 과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수립시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사항은 팝업도서관의 운영 목적과 컨셉을 결정하는 것이다. 팝업도서관의 운영은 정형화된 방식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운영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운영목적에 따라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컨셉이 결정되고 나면 컨셉에 맞는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지만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활발하고 변화하지만 너무 혼잡한 거리를 선택하면 사람들의 이동이 과도하게 많아져 서두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기에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기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11]. 또한 동일 공간에서 너무 많은 활동이 이루어져서 경쟁을 벌이는 것은 평온한 독서활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공원이거나 버스정류장 인근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준비단계에서는 공간 준비, 도서 준비, 홍보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위치 선정이 완료된 후, 위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밝고 선명한 가구와 표지판(배너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팝업도서관은

야외공간을 활용하며 주민들이 예상치 못한 공간에 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시성이 높은 표지판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팝업도서관에 배치할 도서는 인기 작가의 책, 베스트셀러, 신간서적, 표지가 눈에 띄는 책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체류할 이들을 위해 짧은 길이의 책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준비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사전홍보 작업이다. 팝업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디에 설치되어 운영될지를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홍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셋째, 운영단계에서는 위치와 성격, 목적에 따라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 운영은 동일한 컨셉의 팝업도서관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순환적 운영방식을 뜻하고, 비정기적 운영은 지역의 축제, 특정 기념일 등에 맞추어 이벤트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뜻한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든시간에 지역주민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일상적 독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평가단계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 평가와 다양한 활동을 통한 간접평가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직접평가는 팝업도서관을 방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만족도 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간접평가는 팝업도서관 이용자 수, 팝업도서관을 통한 대출권 수 및 반납권수, 도서관 소개자료 배포 수, 팝업도서관을 통한 신규 이용자 등록 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의 인지도를 높일 뿐 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팝업도서관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국내의 도서관계에서 팝업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운영 전략을 단계별로 짚어 보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팝업도서관의 개념과 시작을 살펴본 결과, 팝업도서관은 최근 글로벌 트렌드로 운영되고 있는 팝업스토어와 같이 단기간 특정 장소를 임대하여 운영하는 “임시”와 “발견”의 개념을 적용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팝업도서관은 도서관에 적용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기 보다는 이전부터 운용되었던 순환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아웃리치 서비스를 보다 다양한 목표와 형태로 변형하여 시대에 맞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팝업도서관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외 사례들을 통해 팝업도서관이 우연히 도서관을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접근성을 높여주어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도왔으며, 도서관의 위기상황에서 대체재 역할을 하여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중요한 기관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팝업도서관은 첫째, 최근 시간부족의 문제로 감소하고 있는 성인의 독서활동 비율을 높이기 위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방안으로도 고려될 수 있으며, 둘째, 도서관의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지금, 위기관리의 한 방법으로도 고려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12]. 마지막으로 도서관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의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National Reading Survey 1-210. Seoul: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4.
- [2] A. Davis, C. Rice, D. Spagnolo, J. Struck and S. Bull, "Exploring Pop-Up Libraries in Practice," *The Australian Library Journal*, Vol. 64, No. 2, pp. 94-104, 2015. DOI: 10.1080/00049670.2015.1011383
- [3] ALIA(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The Story of a Pop Up Library: Promoting Digital Resources in the Community," pp. 1-17, Nov. 2016. <https://read.alia.org.au/file/888/download?token=ouyBcuB7>
- [4] NSW Government, "Books Unbound - A Pop-Up Library for eResource," pp. 1-8, 2015. (https://library.camden.nsw.gov.au/assets/pdf/Books_Unbound_-_A_pop-up_library_for_Eresources_draft_March_2015.pdf)
- [5] Frankston City Library, "A new chapter for Frankston Library," 2023.11.10. (<https://library.frankston.vic.gov.au/Community-Connection/News-and-Updates/News/Frankston-library-refurbishment-Stage-two>)
- [6] Sunshine Coast Council, "Visit The Vault at Epic Diem Nerd Culture Expo," 2023.1.15. (<https://www.sunshinecoast.qld.gov.au/news/visit-the-vault-at-epic-diem-nerd-culture-expo>)
- [7] L. Anderson, S. Bull and H. Cooper, "Library Services Roadshow: Taking 'The Library' to the Students," *Education in Practice*, Vol. 1 No. 1, pp. 8-9, Nov. 2014.
- [8] J. Barnett, B. Stephen and C. Helen, "Pop-Up Library at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Extending the Reach of an Academic Library by Taking "The Library" to the Student," *New Review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 22, No. 2-3, pp. 112-131, 2016.
- [9] Westmorland&Furness Council, "Pop-up Library to open in Ulverston next week" 2023.9.15. (<https://www.westmorlandandfurness.gov.uk/news/2023/pop-library-open-ulverston-next-week>)
- [10] BBC news, "Lowestoft beach huts converted into pop-up library" 2023.9.16(<https://www.bbc.com/news/uk-england-suffolk-66510131>)
- [11] Busan Library. Research on Library Reading Culture Program Development. Busan: Busan Library, 2024.
- [12] Y.R, Youn and E.J, Lee, "A Case Study on the Disaster Man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in Jap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9, No. 5, pp.951-956, 2023. DOI:<http://dx.doi.org/10.17703/JCCT.2023.9.5.951>